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 발행 뉴스레터 - 2004년

9월 (4호)

(한국어판)

지난 6월에 유럽 코리아 재단(EKF) 및 조선유럽경제기술협력센터(KETES)와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한스 자이델 재단은 평양에서 '국제금융'에 관한 첫 번째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특강은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기회가 향후 북한에서 저희 재단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지만 저희 재단은 한반도화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행해 나갈 것입니다.

올 여름 폭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한국 국회의원 두 분을 바이에른 주 오버프랑켄 지역에 위치한 재단 연수원인 반츠수도원에서 개최된 한국관련 세미나의 연사로 초청하였습니다. 또한 9월 초에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아시아정당 국제회의(ICAPP 3)에 참석하였으며, 그 밖에 몇 차례에 걸친 특강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뉴스레터가 유익한 정보제공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저희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만나뵐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베른하르트 켈리거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수록내용

1. 지난 행사 요약
2. 회의 및 세미나공지
3. 인턴모집

1. 지난 행사 요약

☞ 평양에서 ‘국제금융’을 주제로 한 특강 실시 - 한스 자이델 재단이 북한에서 최초로 실시한 학술행사

2003년 10월과 독일연방국회의원단과 공동으로 이루어진 2004년 6월의 두 차례에 걸친 방문 이후에 지난 6월 말에 우리 재단의 평양특강이 최초로 성사되었다. 이는 유럽 코리아 재단 그리고 조선유럽경제기술협력센터(KETES : Korea-Europe Technology and Economy Services) 및 북한측 경제연구소와의 협력으로 성사되었다. 특강의 주제는 ‘국제금융’부문이었다. 참석자들은 중앙은행, 행정부, 특수은행, 대학 등에서 온 사람들로 매우 큰 관심을 나타냈으며, 70개가 넘는 질문들이 쏟아져 나와 예정보다 하루를 연장하여 행사를 진행하였다. 질문은 주로 복수환율 등과 같은 통화정책과 관련된 주요사항들로 이루어 졌다. 특강에 대한 열화와 같은 반응으로 인해 ‘환율과 인플레이션’이라는 주제로 올해 한 번 더 특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 대한민국 국회의원 2인, 독한협회와 한스 자이델 재단이 오버프랑켄 지역 반츠 재단연수원에서 공동주최한 한국관련 세미나에 참석

지난 7월에 한나라당의 김 총환 의원과 김 희정 의원은 우리 재단의 초청으로 정치연수 겸 한국관련 세미나참석을 위해 독일의 바이에른 주를 방문하였다. 김 총환 의원은 오랜 기간동안 서울시 강동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김 희정 의원은 34세로 대한민국 의정사상 최연소 여성국회의원의 기록을 남긴 장본인이다. 또한 김 희정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으며, 부산의 지역구에서 출마하여 당선됨으로써 중요한 정치적 비중을 가지게 되었다. 김 총환 의원과 김 희정 의원이 원헨과 바이에른 주에서 만난 인사들로는 우어줄라 맨래 교수(바이에른 주 의원, 한스 자이델 재단 부이사장), 페터 비터라우프 박사(한스 자이델 재단 수석사무총장), 라이너 게퍼트 박사(한스 자이델 재단 국제협력원 원장), 에밀리아 뮐러 바이에른 주 환경부 차관, 프란츠 요셉 프시러 바이에른 주의회 경제교통분과위원회 위원장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바이에른 주 수상청과 지멘스사, BMW사 그리고 바이엔슈테판 대학 등을 방문하였다. 마지막 일정으로 우리 재단과 독한협회가 공동주최하는 한반도현황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현재 6자회담의 진행과정

및 총선이후의 정국현황에 관해 발표하였다. 행사와 함께 독한협회 회장이며 동시에 독한의원친선협회 회장인 하르트무트 코쉬크 의원과의 의견교환도 이루어 졌다.

☞ 아시아정당 국제회의(ICAPP 3 - 2004년 9월 베이징))

9월 3일부터 5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제 3회 ‘아시아정당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35개 아시아국가에서 81개 정당들이 참가한 이번 회의는 2000년 마닐라 1차회의, 2002년 방콕 2차회의보다 규모가 늘어났다. 호세 데 베네치아 필리핀 국회의장의 제안과 한스 자이델 재단 및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의 지원으로 시작된 아시아정당 국제회의는 아시아지역의 국제교류 및 정당이념의 이해를 위한 중요한 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많은 정치인들이 참석하였는데, 특히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총리, 탁신 시나와트라 태국총리 등이 자리를 함께 함으로써 회의가 가지는 정치적 중량감이 배가되었다. 우리 재단에서는 한국사무소 대표를 비롯한 아시아지역 사무소 대표들과 국제협력원 원장인 라이너 게퍼트 박사가 옵저버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였다. 데 베네치아 ICAPP 집행위원회 명예회장은 폐막연설에서 지금까지 회의수행을 가능하게끔 한 재단의 중요한 역할에 관해 언급하였다. 제 4차회의를 위해 한국의 이 부영 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우리당이 개최신청을 하였다.

☞ ‘한국과 유럽’ 특강 시리즈 개시(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한국과 유럽’이라는 주제로 주관하는 특강시리즈의 제 1연사로 베른하르트 켈리거 박사가 9월 8일에 ‘유럽연합과 북한’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이번 특강시리즈는 박 성조 교수가 기획하였으며, 강사로는 전문학자, 외교관, 실무자 등이며, 우리재단이 재정지원에 참여한다.

2.회의 및 세미나공지

☞ (사)지방행정연구소 주최세미나

사단법인 지방행정연구소(이사장 :권순복)는 9월 17일(금) 서울에서 ‘주민자치와 자치단체 내의 분권화’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한다. 소규모 행정단위인 읍, 면, 동의 자치는 지방행정연구소가 지속적으로 연구대상으로 삼아온 주제이며, 지방행정연구소 이사장인 권순복 박사는 현재 지방분권위원회의 고문역할을 맡고있다.

- 일시 : 2004년 9월 17일 14:00~17:50
- 장소 : 지방행정공제회관(용산소재) 회의실(10층)
- 주최 : (사)지방행정연구소, 청원군
- 후원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서울신문사, 한스 자이델 재단

회의일정

13:30~14:00 등록

14:00~14:20 개회사 : 권순복 이사장(지방행정연구소)

환영사 : 오효진 군수(충북 청원군)

축사 : 베른하르트 켈리거 박사(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14:20~16:00

- 사회 : 오재일 교수(전남대 행정학과)

- 발제 1 : 자치단체 내의 분권과 읍, 면, 동 행정의 민주화

권순복 이사장(지방행정연구소)

- 발제 2 : 자치단체 내의 분권과 주민자치조직

안성호 교수(대전대 행정학과)

- 발제 3 : 동네자치와 민주시민교육

최봉익 위원장(광주 YMCA 좋은동네 시민대학)

- 발제 4 : 일본의 시정촌 합병과 자치단체 내의 분권

다나카 다케시(일본자치제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장)

16:00~17:00 토론

- 토론자 : 오효진 군수(충북 청원군)

이기우 교수(인하대, 정치학)

전득주 교수(송실대 정외과)

지병문(국회의원, 열린우리당)

☞ 2004 한독워크숍

우리 재단과 평화문제연구소의 연례행사인 한독워크숍이 올해에는 10월 28일에 개최된다. 이번 워크숍의 주제는 통독이후의 지역정책 및 동서독 군통합이다. 독일초청연사로는 노르베르트 아이크호프 교수(포츠담 대학교)와 미하엘 파이스커 이다. 두 연사는 하루 전인 10월 27일에는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창립기념 국제세미나(주제 : 뉴거버넌스

시대의 지역협력과 통합)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재단 사무실로 문의 요망

☞ 북측인사 초청연수(중국 핑두)

교육과제수행은 우리 재단의 주요활동 중 하나이다. 이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은 행사의 개최뿐만 아니라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는 직업교육분야도 포함된다. 우리 재단은 수 년 전부터 중국 교육부와 협력하여 여러 곳에서 이러한 직업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달에 북한의 조선농업근로자동맹 관계자들이 켈리거 박사와 함께 중국 핑두에 위치한 우리 재단 직업학교를 방문하여 농촌지역 직업교육분야의 협력가능성을 타진해 볼 예정이다. 현지일정은 핑두 직업학교 프로젝트 책임자인 시몬 농베르거 씨가 준비하였다. 북한의 식량난과 농업분야 개혁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시도는 꼭 필요한 것이다.

3. 인턴모집

우리 재단 한국사무소는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대학생(학사, 석사과정)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약간명의 실습생 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인턴의 수행과제는 재단사무의 일반적인 지원 및 한반도 화해지원, 지자체 지원 그리고 여성의 정치 및 사회참여지원부문과 관련된 연구과제수행이다. 자격요건으로는 영어 또는 독일어 구사능력을 갖추어야만 한다. 지원 및 문의 : info@hss.or.kr

2004년 9월부터 우리 재단 한국사무소는 독일인 인턴지원자들을 위해 인턴쉽 제공 프로젝트인 KOPRA를 통해서도 실습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www.kopra.org).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 1동 64-1 수영빌딩 501호 우:140-886

Tel: +82-2-790-5344 or 5345

Fax: +82-2-790-5346

E-Mail: info@hss.or.kr

Homepage: www.hss.or.kr